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 병 관	윤 태 응	노 환 호	임 혜 빈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위협받는 경험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lman 등(2013)의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성향 도구를 기반으로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총 16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요인 각 8문항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관련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개발된 척도가 관련된 척도들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단축형 척도 개발을 위해 2요인 각 4문항의 단축형 척도의 타당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 모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단축형 척도가 타당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효용성 및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296).

† 교신저자 : 임혜빈,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hbrim@kw.ac.kr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4%로 이와 같은 추세는 점차 확대되어 2045년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809만 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통계청, 2017)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 형태가 점차 붕괴되는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2030세대의 포기 항목에 이전에는 기본적인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인간관계가 포함되며 '5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파편화 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이로 인해 맞닥뜨리게 될 경제적, 산업 구조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불안정하고 고립된 사회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경제적, 산업 구조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의욕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찍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에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매슬로우(Maslow, 1943)나 친애(Affiliation)의 욕구를 강조하는 최근의 진화심리학적 관점(Kenrick, Griskevicius, Neuberg, & Schaller, 2010)의 주장처럼 우정, 친밀감, 나아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집단에 안정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가 위협받거나 좌절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개인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비단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개인 내적인 심리적 고통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현상은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탐구하여야 할 현상이라 할 수 있다(Cacioppo & Patrick, 2008).

사회적 배제는 어느 개인이나 빈번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건이기 때문에 최근 소비자 연구에서는 개인 소비자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소비자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Chen, Wan 및 Levy(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의인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더 컸으며, 이는 사람으로부터 지각된 관계에 대한 위협을 대체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clos, Wan 및 Jiang(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질적 선호가 증진되었으며 더 높은 위협을 감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Lee와 Shrum(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유형화하여 어떤 유형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소비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유형 가운데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증가해 더 높은 기부 의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배제의 유형 가운데 무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소비자가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은 어떠한 유형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성향 및 소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사회적 배제

연구는 사회적 배제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탐색하는데 그칠 뿐 사회적 배제 경험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비자들이 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해석하며, 개인에 따라 동일한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독립된 사회적 배제 척도를 개발하여 이용하기 보다는 UCLA 의로움 척도(version 3; Russell, 1996)를 통해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Park & Baumeister, 2015).

이와 같은 척도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배제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개인이 특정 유형의 사회적 배제를 어느 정도나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Gilman, Carter-Sowell, DeWall, Adams 및 Carboni(2013)의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를 거절과 무시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경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따른 소속의 욕구는 인류 보편적인 공통적 욕구라고 하지만 국가와 사회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관계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배제를 다룬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외면 받을 수 있는 위협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 단서를 관찰하곤 한다(Eisenberger & Lieberman, 2005).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거나 권유나 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등의 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무시 혹은 거절 받은 경험 및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인 사회적 관계 동기를 위협한다(Baumeister & Leary, 1995; Williams, 2007). 인간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 소속감은 안전이나 출산 및 양육, 정신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Smith et al., 1999).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는 거미줄 형태로 얽힌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빈번하게 겪게 되는 경험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인들로부터 거절(Being rejected) 경험이나 무시(Being ignored) 경험과 같은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된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Williams, 2007).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소속 욕구(need to belong)를 위협하며, 그에 따라 심리적 및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Williams, 2007).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Maner et al., 2007;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경험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의 직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Twenge et al., 2001), 실험에 참여한 동료에게 덜 매력적인 상품을 추천하거나(Chow, Tiedens, & Govan 2008), 혹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타인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곤 한다(Warburton et al. 2006). 이와 반대로 어떤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경험이 오히려 친화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배제를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며, 타인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되곤 하며(Maner et al., 2007),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Lakin, Chartrand, and Arkin 2008), 주변 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Pickett, Gardner, & Knowles 2004). 또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친화적인 소비를 더 촉진시키며(Mead et al., 2011), 타인들과 함께 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Loveland et al., 2010).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손정식과 이병관(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뒤센미소(진짜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우러난 미소)가 기부의도와 광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참가자들은 뒤센미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애리, 손영우, 임혜빈(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소속욕구가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정서 반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으며, 연구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참가

자들은 관계에 따른 부정적 정서 반응을 더 크게 예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오민정과 황윤용(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와 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는데, 사회적 배제를 외귀인 한 경우 윤리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 경험은 다양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곤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Lee와 Shrum(2012)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배제 경험의 특성에 따라 위협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네 가지 욕구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데 이는 소속감(belongingness), 자기존중감(self-esteem), 통제감(control) 및 존재감(meaningful existence)이다(Williams 2001; Zadro, Williams, and Richardson 2004). 이러한 네 가지 욕구는 거절(Rejection)과 무시(Ignore)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제 유형과 관련이 있다. Williams(2007)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관계 욕구, 통제감과 존재감을 효능감 욕구로 분류하고 관계 욕구와 효능감 욕구 가운데 어떤 욕구가 위협받는가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유형(거절과 무시)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욕구가 위협받을 경우 사람들은 친사회적이고,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며, 그와 반대로 효능감 욕구가 위협받을 경우 사람들은 통제력이나 도발, 주목 받으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ee와 Shrum(2012)은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두 유형과 유형에 따른 욕구 위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했는데, 거절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무시를 경험한 소비자에 비해 기부 의사가 더

켰으며, 무시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거절을 경험한 소비자에 비해 더 큰 과시소비 행동을 나타냈다. 또한 Lee, Shrum 및 Yi(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거절과 무시는 본인이 속한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배제의 이유가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거절로 인식했으며, 배제의 맥락이 합당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은 공격적이거나 주목받고자 하는 무시 맥락으로 해당 경험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7). 즉, 사회적 배제란 거절과 무시의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배제의 상황이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가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거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배제의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향후 관계성의 지속이 가정되지 못하는 상황적 맥락은 무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제의 상황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맥락이 거절의 맥락인 경우 관계성이 가정되는 상황에 따라 위협의 정도가 낮고 지속적인 관계성의 동기가 이어질 수 있으며, 무시의 맥락은 추가적인 관계성이 가정되지 못하며 외면 받는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인식하는 상황적 맥락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욕구가 위협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illiams, 2007).

또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같은 문화권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Lee & Shrum,

2012; Molden, Lucas, Gardner, Dean, & Knowles, 2009). 즉, 사회적 배제 경험은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관점에서 경험 그 자체가 유발하는 욕구에 대한 위협과 반응에 의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Chen, Wan, & Levy, 2017; Dennis, Alamanos, Papagiannidis, & Bourlakis, 2016; Duclos, Wan, & Jiang, 2013; Lu, & Sinha, 2017), 거절과 무시 경험이 같은 맥락에서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찾아보기 힘들다(Gilman, Carter-Sowell, DeWall, Adams, & Carboni, 2013).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ark과 Baumeister(2015)의 연구에서는 UCLA 외로움 척도(version 3; Russell, 1996)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해당 척도는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며 거절과 무시 경험 또한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Gilma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를 유형을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고립되거나 외면 받는 무시 유형과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거절로 유형을 구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고 사회적 배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ilman 등(2013)의 연구에서 개

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거절과 무시로 나누어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 유형을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기존의 도구를 통해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연구를 수행했으며, 거절과 무시의 2요인 모형의 적합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경제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축형 척도를 제안하고자 연구 2를 수행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단축형 척도의 타당화 분석을 수행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두 유형의 구분과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통한 타당도 확보 및 단축형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1.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구 대상

온라인 조사 업체 전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경험의 유형과 경험 정도에 따른 사회적 배제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직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였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세대에 차이를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황선영, 어유경, 2018)와 세대에 따라 경험에 대한 반응,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라 20~30대의 집단만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총 410명(남자 124명)의 샘플을 수집했으며 평균 나이는 29.42세(20세 ~ 39세)였다.

설문 구성

설문조사에 참가한 410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표본을 랜덤 추출을 통해 절반을 나누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Gilman, Carter-Sowell, DeWall, Adams 및 Carboni(2013)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Gilman et al., 2013) 16문항, 소속 욕구 척도(김애리, 손영우, 임혜빈, 2014; Leary, Kelly, Cottrell, & Schreindorfer, 2013) 10문항, UCLA 외로움 척도(version 3; Russell, 1996) 20문항, 사회적 자기 효능감(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 6문항, 삶의 만족 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5문항, 자기존중감(이훈진, 원호택, 1995; Rosenberg, 1965) 10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Gilman 등(2013)에서 개발한 11문항의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다룬 전체 19문항을 대상으로 원 문항을 참고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문항으로 변환하여 설문을 구성했다. 기존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총 19문항을 한국어로 변환한 후 심리학 박사 2인과 박사과정 학생 2인, 전공자 4인이 검토하여 문항 오류

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중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안면 타당도가 낮은 3개 문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3개의 문항은 내용이 중복되어 연구자들의 협의를 통해 제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구분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을 본 연구에서도 채택했으며, 하위 요인은 사회적 배제 경험 중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으로 구분했다. 무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은 나와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절 경험은 무시 경험과의 차별화를 위해 역 문항으로 구성했다. Williams(2007)의 리뷰 논문과 Lee와 Shrum(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 경험 중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증진시키고 관계성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적 배제 경험의 두 유형 중 거절 경험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역 문항을 구성했으며 문항은 ‘다른 사람들은 나와 여가를 함께 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무리의 중심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했다. Gilman 등(2013)의 연구와 같이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무시 경험 $\alpha = .95$; 거절 경험 $\alpha = .89$).

소속 욕구 척도

개인의 소속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Leary 등

(2013)이 개발하고 김애리 등(2014)의 연구에서 번안해서 사용한 소속 욕구 척도 10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 주기를 원한다’가 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alpha = .77$).

UCLA 외로움 척도(version 3)

개인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1996)의 연구에서 개발한 UCLA 외로움 척도(version 3) 2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했다. ‘당신은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당신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느낍니까?’와 같은 문항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alpha = .91$).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람들과 관계 맺기나 어울림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982)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을 통해 측정했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능숙하다’와 같은 문항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alpha = .83$).

삶의 만족 척도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5 문항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나는 나의 삶

에 만족한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alpha = .88$).

자기존중감 척도

개인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변안한 자기존중감 척도 10 문항을 이용해 설문을 구성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들 수 있다. 다른 척도 문항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alpha = .86$).

분석 방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및 검증 과정을 진행했다. 우선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으로 표집한 총 410명의 온라인 참가자를 무선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두 집단 중 첫 번째 205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했다. 두 번째 205명의 집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했다. 하위 요인간 변별을 위해 두 하위요인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으며, 개발한 척도 문항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총 205명의 온라인 설문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는 R 프로그램 (<https://www.r-project.org>)의 “psych”패키지를 이용했다(백영민, 2015; 장승민, 2015; Revelle, 2018). 요인 추출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했으며,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Oblimin 방식을 이용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수치로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작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2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요인 모형의 TLI 값은 .92이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의 값은 .09(90% CI = [.08, .10])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rowne과 Cudeck(1993)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보통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에 반해 1요인 모형의 RMSEA 값은 .18이었으며, 보통 적합도 수준인 .10 수준을 초과하는 나쁜 적합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LI = .66). 또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통해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두 하위요인에 따른 각 8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Nimon, Zigarmi, Houson, Witt 및 Diehl (2011)의 연구와 Stevens(1996)가 제안한 .40 수준 이상의 요인 부하량 기준을 만족하여 문항이 하위요인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하위요인의 문항 중 개념적으로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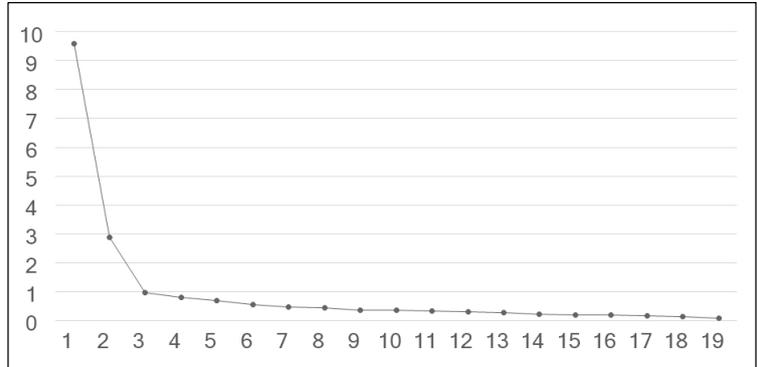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스크리 도표

표 1.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문항 및 요인부하량(N=205)

문항		λ_1	λ_2
무시4	다른 사람들은 대화하는 중에 나를 무시한다.	.92	-.02
무시1	다른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88	-.02
무시2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묵살한다.	.87	.02
무시3	다른 사람들은 내 인사를 무시한다.	.87	-.03
무시6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87	.01
무시5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83	.01
무시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82	.01
무시8	다른 사람들은 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68	.10
거절4	다른 사람들은 나와 여가를 함께 하고자 한다.	.04	.80
거절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의 모임이나 조직에 초대한다.	.08	.79
거절7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주말 여가활동이나 취미를 함께하자고 한다	-.06	.78
거절6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	-.01	.77
거절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무리의 중심이다	-.04	.68
거절5	다른 사람들은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05	.67
거절1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의 팀원으로 선발한다.	-.03	.66
거절2	다른 사람들은 내 집에 기꺼이 놀러 온다.	.06	.56
Eigenvalues		5.83	4.13
% of variance		36.4%	25.8%
Cronbach alpha		.95	.89

이 높아 적합도를 흐리는 문항과 통계적 구성 개념 반영 적합도를 모두 고려하여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두 하위요인은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무시 경험 8문항, 거절 경험 8문항이 확정되었다. 하위 요인 명은 그대로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으로 명명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2요인, 각 8문항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분석을 수행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R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분석 패키지는 “lavaan”패키지를 이용했다(백영민, 2017; Rosseel, 2012). 앞서 무선으로 구분한 두 번째 집단 총 205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채택했다. 두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2요인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사회적 배제 경험을 통합한 1요인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채택했다. 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Tucker-Lewis Index(TLI; Bentler & Bonett, 1980),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 RMSEA(Steiger & Lind, 1980) 및 SRMR(Hu & Bentler, 1999)을 통해 모형 적합도 지수를 검증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2요인 모형의 CFI와 TLI값은 각각 .96, .95로 이는 Bentler(1990)이 제안한 .90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MSEA 값은 .07(90% CI = [.06, .09])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좋은 적합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Hu와 Bentler(1999)에서 제안한 SRMR 값을 확인한 결과 .05으로 .08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수치는 최종적으로 Hu와 Bentler(1999)에서 제안한 공동기준에 대한 적합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 적합도는 1) CFI .96 이상 & SRMR .10 이하 기준과 2) RMSEA .06 이하 & SRMR .10이하 기준에 비추어 비교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CFI(.96)와 SRMR(.05)이 첫 번째 공동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쟁 모형인 1요인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AIC 값을 비교한 결과 AIC의 변화량(Δ AIC) 값이 432.32이며 2요인 모형의 AIC값(5902.94)이 1요인 모형의 AIC값(6335.26)보다 작아 2요인 모형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형이라는

표 2.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N=205)

모형	χ^2	df	χ^2/df	CFI	TLI	SRMR	RMSEA [90% CI]	AIC
1요인 모형	644.61	104	6.20	.77	.74	.13	.16 [.15, .17]	6335.26
2요인 모형	210.29	103	2.04	.96	.95	.05	.07 [.06, .09]	590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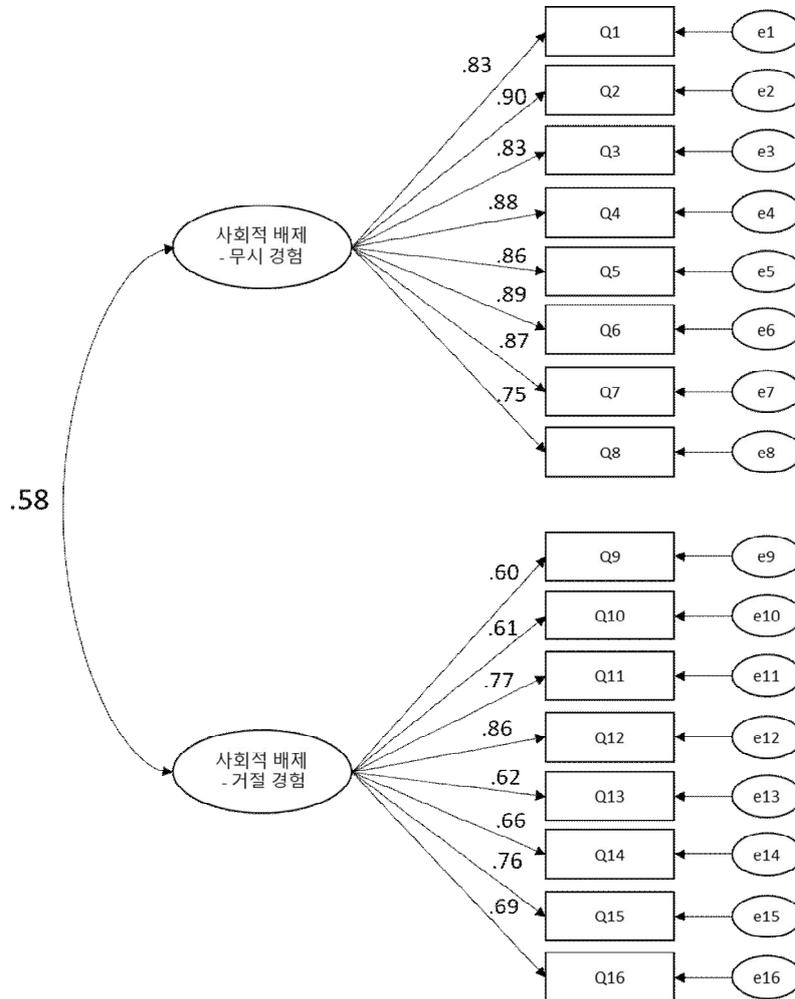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에 대한 2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것이 확인되었다(Jöreskog, & Sörbom, 1993). 또한 구체적으로 1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1요인 모형은 2요인 모형에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한 CFI, TLI, RMSEA, SRMR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모형 적합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MSEA [90% CI] = .16 [.15, .17], SRMR = .13, CFI = .77, TLI = .7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회적 배

제 경험 척도의 두 하위 요인 간 구조 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하위 요인 간 상관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하위 요인간의 관계가 상관을 갖고 있으나 보통 정도의 관계를 의미한다(성태제, 2014).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한 두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도 .53으로 두 하위 요인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자면 두 하위 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 1요인 모형에 비해 2요인 모형에서 요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두 개념은 완전히 구분되는 낮은 상관

표 3.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요인 1(무시 경험)	요인 2(거절 경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1	1	
	요인 2	.53***	1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1	1	
	요인 2	.58***	1

*** $p < .001$

표 4.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문항 <- 요인	추정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Critical Ratio)
Q1 <- 무시경험	1	.831		
Q2 <- 무시경험	1.048	.895	.063	16.661***
Q3 <- 무시경험	0.954	.828	.065	14.681***
Q4 <- 무시경험	1.045	.882	.064	16.273***
Q5 <- 무시경험	1.004	.863	.064	15.661***
Q6 <- 무시경험	1.010	.894	.061	16.649***
Q7 <- 무시경험	0.902	.869	.057	15.818***
Q8 <- 무시경험	0.730	.748	.058	12.554***
Q9 <- 거절경험	1	.601		
Q10 <- 거절경험	1.090	.608	.150	7.250***
Q11 <- 거절경험	1.245	.771	.144	8.667***
Q12 <- 거절경험	1.376	.862	.151	9.139***
Q13 <- 거절경험	0.967	.615	.132	7.338***
Q14 <- 거절경험	1.082	.659	.142	7.624***
Q15 <- 거절경험	1.334	.761	.159	8.409***
Q16 <- 거절경험	1.234	.685	.154	8.023***

RMSEA [90% CI] = .07 [.06, .09], SRMR = .05, TLI = .95, CFI = .96

*** $p < .001$

관계의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거절과 무시는 배제라는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그 맥락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라는 단일 개념의 하위 요인으로서 관련이 있으면서도 서로 변별되는 요인이라는 것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

구성 타당도 중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와 관련 있는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예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회적 배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 척도(Diener et al., 1985)와의 상관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다. 구성 타당도 검증은 Gilman 등(201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 확인 척도들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는 UCLA 외로움 척도(ver. 3; Russell, 1996)와 부정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herer et al., 1982), 및 자기존중감(이훈진, 원호택, 1995; Rosenberg, 1965) 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했다.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하위 요인(무시 경험 & 거절 경험)을 구분하여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 모두 위의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UCLA 외로움 척도(ver. 3)와 무시 경험($r = .57, p < .001$) 및 거절 경험($r = .62,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두 하위요인의 상관관계수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One-tail $p = .25$). 이어서 부정 상관을 나타

낼 것이라고 가정한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의 경우 무시 경험($r = -.38, p < .001$)과 거절 경험($r = -.52, p < .001$)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두 상관관계수 간의 차이는 두 개념 모두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하므로 같은 방향이기에 단측(One-tail)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 = .048$).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며 이는 거절 경험이 많고 어울리지 못할수록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낮아짐을 뜻하고, 무시 경험보다 거절 경험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자기존중감(무시 경험 $r = -.39, p < .001$; 거절 경험 $r = -.38, p < .001$)은 개발 척도의 두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One-tail $p_s > .10$).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가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으며, 배제 경험이 더 클수록 사회적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은 사회적 관계 능력과 경험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구성 타당도 검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어서 김애리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와 소속 욕구가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경험에 따른 정서 반응이 두 척도의 수준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두 개념이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으며, 두 개념이 서로 구

표 5. 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 척도 및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소속욕구	외로움	사회적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
무시 경험	.11	.57***	-.38***	-.39***	-.20**
거절 경험	.08	.62***	-.52***	-.38***	-.28***

** $p < .01$, *** $p < .001$

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를 직접 비교하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두 하위요인인 무시 경험($r = .11, p = .13$)과 거절 경험($r = .08, p = .29$) 모두 소속 욕구와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유발되는 소속 욕구의 상승이라는 인과적 동기 상승과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배제 경험에 따라 유발되는 소속 추구 동기와 내재적 소속 욕구 수준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배제와 소속 욕구간의 관계는 Baumeister와 Leary(199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에 따라 사람들의 부적합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소속 욕구가 상승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Williams(2009)의 정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소속감(need to belong), 자존감(self-esteem), 존재감(meaningful existence), 통제감(control)의 네 가지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점화하는 실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 경험은 네 가지 욕구를 모두 발현시키게 된다(Williams, 2009; Williams & Jarvis, 2006). 즉, 소속 욕구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따른 경험과 욕구 위협의 일부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거절과 무시 경험의 수준에 따라 유발되는 동기의 정도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거절의 경험을 높게 지각한 사람들이 소속의 욕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비슷한 혹은 더 큰 수준의 무시 경험의 정도가 크다면, 이들은 관계성의 욕구 보다 존재감과 통제감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절과 무시가 내재적 소속 욕구와의 관계 측면을 상호간에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개념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관련된 다른 척도들과 수렴 및 변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예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삶의 만족 척도와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무시 경험 $r = -.20, p = .003$; 거절 경험 $r = -.28, p < .001$)은 개발 척도의 두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One-tail $ps > .10$).

연구 2. 단축형 척도 제안 및 타당성 검증

최근 측정 도구의 경제성과 간편성을 이유로 심리적 개념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단축형으로 개발되고 있다(Mühlhan, Bullinger, Power, & Schmidt, 2008; Park, MacInnis, Priester, Eisingerich, & Iacobucci, 2010). 이와 같은 경향은 해외연구 뿐만 아니라(예. Griffiths, Wood, Maltby, Taylor, Panagiotti, & Tai, 2015; Richins, 2004) 국내 연구에서도 많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예. 서은국, 구재선, 2011; 오영희, 2011). 특히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응답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예. 김완석, 2007), 온라인을 통한 실험의 활성화와 응답자의 설문 집중 등을 이유로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Oppenheimer, Meyvis, & Davidenko, 2009).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단축형 척도를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구성개념 및 타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검증하여 보다 실용적인 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추가 연구의 목적인 단축형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척도 개발의 절차를 통해 단축형 척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척도 개발 연구에서 확보한 응답자들의 응답 중 무선으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이다. 표본의 크기는 요인분석을 위해 200개 이상의 샘플을 수집해야 보통(fair)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연구(Comrey & Lee, 1992; 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Tabachnick & Fidell, 1996)에 따라 전체 샘플을 앞선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무선 추출해 사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총 16개 문항, 2개 요인에 대해 연구자들이 척도 문항의 내용과 요인 부하량 및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하위 요인 8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선발했다(Park et al., 2010). 선발된 문항은 사회적 배제 경험 중 무시 경험과 거절 경험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문항이 서로 변별되고, 기본 모형의 요인 구조와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구자들이 문항을 선발하여 구성했다. 이어서 척도 개발 절차를 통해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R 프로그램의 “psych”패키지를 이용했다(백영민, 2015; 장승민, 2015; Revelle, 2018). 요인 추출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했으며,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Oblimin 방식을 이용했다. 요인은 기본 척도의 2요인을 채택했으며 2요인 모형의 TLI 값은 .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의 값은 .06(90% CI = [.00, .09])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rowne & Cudeck(1993)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김주환 등, 2009).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통해 단축형 척도의 적합도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두 하위요인에 따른 각 4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Nimon 등(2011)의 연구와 Stevens (1996)이 제안한 기준을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단축형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하위요

표 6. 단축형 척도의 척도 문항 및 요인 부하량(N=205)

문항		λ_1	λ_2
무시1	다른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90	-.03
무시2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묵살한다.	.90	.01
무시4	다른 사람들은 대화하는 중에 나를 무시한다.	.89	.00
무시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77	.05
거절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의 모임이나 조직에 초대한다.	-.03	.95
거절4	다른 사람들은 나와 여가를 함께 하고자 한다.	.06	.73
거절2	다른 사람들은 내 집에 기꺼이 놀러 온다.	.01	.65
거절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무리의 중심이다.	.02	.57
Eigenvalues		3.03	2.21
% of variance		37.9%	27.6%
Cronbach alpha		.92	.82

인이 잘 구분되며 기본 모형의 조건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하위 요인 간 상관은 .56으로 기본 모형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단축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R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분석 패키지는 “lavaan” 패키지를 이용했다(백영민, 2017; Rosseel, 2012).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채택했다. 모형은 기본 모형에서 가정한 2요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했으며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Tucker-Lewis Index(TLI; Bentler & Bonett, 1980),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 RMSEA(Steiger & Lind, 1980) 및 SRMR(Hu & Bentler, 1999)을 통해 검증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단축형 척도의 2요인 모형 적합도가 유의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CFI와 TLI값은 각각 1.00과 1.01로 이는 Bentler(1990)이 제안한 .90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MSEA 값은 .00(90% CI = [.00, .04])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좋은 적합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Hu와 Bentler(1999)에서 제안한 SRMR 값을 확인한 결과 .02로 .08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동기준 또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총 4가지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단축형 척도의 2요인 모형 또한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형 적합도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단축형 척도의 요인 구조가 연구 1에서 개발된 모형 적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을 보다 잘 설명하며 AIC값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7. 단축형 척도의 모형 적합도 지수(N=205)

모형	χ^2	df	χ^2/df	CFI	TLI	SRMR	RMSEA [90% CI]	AIC
단축형 척도	14.53	19	0.76	1.00	1.01	.02	.00 [.00, .04]	315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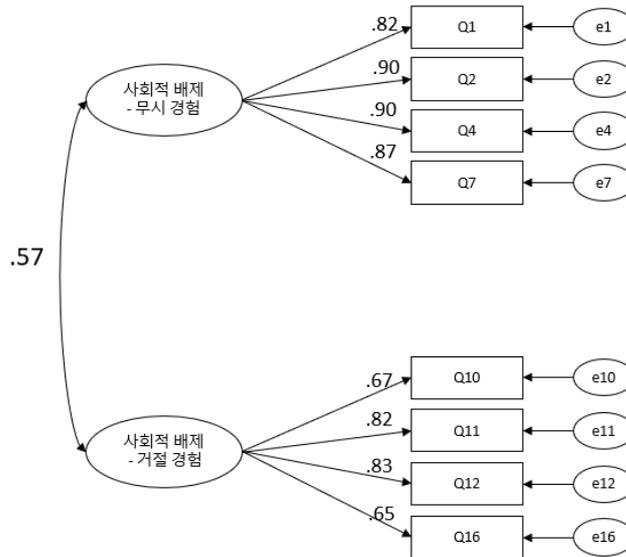


그림 3. 단축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8.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문항 <- 요인	추정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Critical Ratio)
Q1 <- 무시경험	1	.822		
Q2 <- 무시경험	1.061	.897	.067	15.820***
Q4 <- 무시경험	1.072	.895	.068	15.853***
Q7 <- 무시경험	0.909	.866	.061	15.008***
Q10 <- 거절경험	1	.668		
Q11 <- 거절경험	1.105	.819	.115	9.609***
Q12 <- 거절경험	1.099	.825	.114	9.641***
Q16 <- 거절경험	0.978	.651	.122	8.043***

RMSEA [90% CI] = .000 [.000, .044], SRMR = .022, TLI = 1.01, CFI = 1.00

*** $p < .001$

표 9. 단축형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소속욕구	외로움	사회적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
무시 경험	.09	.55***	-.36***	-.36***	-.20**
거절 경험	.05	.61***	-.51***	-.40***	-.22**

** $p < .01$, *** $p < .001$

구성 타당도 검증

이어서 단축형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본모형에서 검증한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정적 상관을 가정한 UCLA 외로움 척도(ver. 3; Russell, 1996)와 부정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herer et al., 1982), 삶의 만족 척도(Diener et al., 1985) 및 자기존중감(이훈진, 원호택, 1995; Rosenberg, 1965)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또한 기본 모형에서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소속 욕구 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상관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단축형 척도의 구성 타당도 또한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9를 통해 제시했다.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Gilman 등(2013)의 청소년용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형 사회적 배제 척도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본 모형인 2요인 각 8문항의 사회적 배제 경험(무시경험, 거절경험) 척도와 2요인 각 4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구성 개념을 유의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련의 분석 결과 무시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과 거절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요인으로 잘 묶인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하위 요인 간 상관 또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안정된 모형임이 검증되었고 구성 타당도 또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더불어 경제성 및 효율성 요구(김완석, 2007; Mühlan et al., 2008)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기본 모형의 단축형 척도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단축형 모형은 기본 모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모형임이 검증되었으며, 문항 수 등 경제성 및 효율성, 인지적 노력을 덜 요구할 수 있는 모형임이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검증되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원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며(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경험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욕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Williams, 2009). 사회 구성과 네트워크가 점

차 넓어지고 복잡하게 구성됨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며 사회적 배제에 따른 부정적인 행동의 발현 가능성(Chow et al., 2006; Twenge et al., 2001; Warburton et al., 2006)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배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최근 소비자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소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Lee et al., 2017). 하지만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개인의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측정을 통해 경향성을 확인하고 있는 현실이다(Park & Baumeister, 20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에 따른 유형을 거절과 무시로 구분하여 개인의 배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욕구를 위협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거절과 무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Lee & Shrum, 2012), 사실 대다수의 사회적 배제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단일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Chen et al., 2017). 문화권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제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거나(Lee et al., 2017),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배제 경험을 다르게 받아드리는 등(Lee & Shrum, 2012; Molden et al., 2009) 사회적 배제의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두 유형인 거

절과 무시 두 하위 요인 간 상관이 .50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 배제의 개별 유형은 완벽히 구분되는 독특성을 띄고 있기 보다는 유형 간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는 편이 적합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배제 경험의 효과는 어떤 문화권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국내에서 사회적 배제 유형을 확인하고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통해 사회적 배제 유형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 배제 연구를 한 단계 확장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맥락이나 상황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Wan, Xu, & Ding(2014)의 연구와 Chen 등(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고 있으며, Pfundmair, Graupmann, Frey, & Aydin(2015)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권에 따라 같은 시나리오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하위 요인의 변별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은 설문문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읽고 응답한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물음 문항과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시나리오 응답 문항은 Williams(2009)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실험 확인 문항을 기준으로 Wan 등(2014)의 연구와 Chen 등(2017)의 시나리오 기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응답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거절과 무시로 나뉘며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인 문항을 분석을 통해 선별했다. 그에 따라 거절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거절당했다고 느꼈다.’와 ‘자존심이 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무시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다.’와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로 확정되었다(factor loadings > .50). 시나리오는 거절과 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으며 거절 시나리오는 ‘얼마 전, 나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영화감상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동아리 회장에게 지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동아리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가입을 거절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동아리 회장에게 연락했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아쉬운 답변을 들었다.’의 문장을 무시 시나리오는 ‘얼마 전 나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였다. 송년회에는 친하게 지내던 같은 팀 동료들뿐만 아니라 회사 복도에서 가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던 다른 팀 직원들도 많이 와 있었다.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얼굴을 알고 지내던 다른 팀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못들은 척하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한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를 떴다.’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응답 문항과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과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거절과 무시)간의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응답한 거절 반응 응답 문항과 무시 척도 간의 상관보다 거절 척도 간의 상관보다 더 컸으며($r_{\text{무시}}=.26$, $r_{\text{거절}}=.35$),

무시 반응 응답과 거절 척도 간의 상관보다 무시 척도 간의 상관이 더 크게 분석되었다($r_{\text{무시}}=.47$, $r_{\text{거절}}=.30$). 이는 거절과 무시 경험 정도가 큰 사람들이 시나리오에 따른 반응에 있어서 거절과 무시를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무시 시나리오와의 상관 분석 결과 같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거절 반응 $r_{\text{무시}}=.10$, $r_{\text{거절}}=.16$; 무시 반응 $r_{\text{무시}}=.37$, $r_{\text{거절}}=.28$). 시나리오를 통해 추가 분석을 확인한 결과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예측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응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사회적 배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유형을 확인하지 못한 현실과 문화 차이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연구를 위한 탐색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4가지 욕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시나리오, 자극물을 개발하여 도구를 통해 측정할 사회적 배제의 유형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해 도구의 타당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 연구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권에서 사회적 배제의 거절과 무시경험이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국내에서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사회적 배제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요인 구조를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변화하고 있는 시대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최근의 현상을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Williams (2007)에 따르면 거절경험은 관계욕구인 소속감과 자존감과 관계되고 무시경험은 효능감 욕구인 통제감 및 존재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거절을 경험한 소비자는 소속감을 자극시키는 광고메시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무시를 경험한 소비자는 통제감과 존재감을 자극하는 광고메시지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예측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이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해석의 관점을 명확히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타당화 연구 수행과 함께 보다 명확한 문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국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타당한 척도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광고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존의 광고연구 지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Duclos, Wan & Jiang (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질적 선호가 증진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의 거절경험과 무시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이 물질적 선호와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물질적 제품의 선호와 경험적 제품의 선호를 사회적 배제 척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존의 물질적 구매와 경험적 구매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윤태웅, 2017).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연구의 가치는 소비자 또는 인간들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난 뒤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

내는 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적 결정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부정적인 심리적 및 행동적 반응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애리, 손영우, 임혜빈 (2014).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가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7(3), 83-94.

김완석 (2007). 효율적인 인지욕구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8(1), 127-133.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영민 (2015). R를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영민 (2017). R를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성태제 (2014). *현대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7판). 서울: 학지사.

손정식, 이병관 (2016).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수혜자의 표정이 공익광고 평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7(2), 357-374.

오민정, 황윤용 (2014). 사회적 배제는 윤리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가?. *소비자학연구*,

- 25(4), 181-203.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윤태웅 (2017). 당신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가?: 물질적 구매와 경험적 구매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9(2), 332~375.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 15-29.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079-1100.
- 조현주, 임현우, 현명호, 조선진, 지유나, 전태연, 방명희 (2008). 일반인의 우울증 태도에 연구. *스트레스研究*, 16(3), 233-240.
- 질병관리본부 (2009).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사항, 2(36), 601-616.
-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2015년-2045년.
- 황선영, 어유경 (2018).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세대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 127-152.
- SBS 뉴스 (2017.6.19.). '욱' 못 참고 분노 범 죄...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될 수 있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54097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cioppo, J. T., & Patrick, W. (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WW Norton & Company.
- Chen, R. P., Wan, E. W., & Levy, E. (2017).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consumer preference for anthropomorphized brand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7(1), 23-34.
- Chow, R. M., Tiedens, L. Z., & Govan, C. L. (2008). Excluded emotions: The role of anger in antisocial responses to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896-903.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Dennis, C., Alamanos, E., Papagiannidis, S., & Bourlakis, M. (2016). Does social exclusion influence multiple channel use? The interconnections with community, happiness,

- and well-be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3), 1061-1070.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clos, R., Wan, E. W., & Jiang, Y. (2013). Show Me the Honey!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Financial Risk-T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122-135.
- Eisenberger, N. I., & Lieberman, M. D. (2005). Why it hurts to be left out: The neurocognitive overlap between physical and social pain. In K. D. Williams, J. P. Forgas, & J. P.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 109-127).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Gilman, R., Carter-Sowell, A., DeWall, C. N., Adams, R. E., & Carboni, I. (2013). Validation of the ostracism experience scale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25(2), 319.
- Griffiths, A. W., Wood, A. M., Maltby, J., Taylor, P. J., Panagioti, M., & Tai, S. (2015). The development of the Short Defeat and Entrapment Scale (SDES). *Psychological assessment*, 27(4), 118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New features of LISREL 8*.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92-314.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8), 816-822.
- Leary, M. R., Kelly, K. M., Cottrell, C. A., & Schreindorfer, L. S. (2013). Construct validity of the need to belong scale: Mapping the nomologic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6), 610-624.
- Lee, J., & Shrum, L. J. (2012).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charitable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 differential needs explan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30-544.
- Lee, J., Shrum, L. J., & Yi, Y. (2017). The role of cultural communication norms in social exclusion effect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7(1), 108-116.
- Loveland, K. E., Smeesters, D., & Mandel, N. (2010). Still preoccupied with 1995: The need to belong and preference for nostalgic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3), 393-408.
- Lu, F. C., & Sinha, J. (2017). Speaking to the heart: Social exclusion and reliance on feelings versus reasons in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7(4), 409-421.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99.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0).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5), 902-919.
- Molden, D. C., Lucas, G. M., Gardner, W. L., Dean, K., & Knowles, M. L. (2009). Motivations for Prevention or Promotion Following Social Exclusion: Being Rejected Versus Being Igno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2), 415-431.
- Mühlán, H., Bullinger, M., Power, M., & Schmidt, S. (2008). Short form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ssessments from cross cultural studies for use in surveys with different populatio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5(3), 142-153.
- Nimon, K., Zigarmi, D., Houson, D., Witt, D., & Diehl, J. (2011). The work cognition inventory: Initial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2(1), 7-35.
- Oppenheimer, D. M., Meyvis, T., & Davidenko, N. (2009). 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s: Detecting satisficing to increase statistical pow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867-872.
- Park, J., & Baumeister, R. F. (2015). Social exclusion causes a shift toward prevention mo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6, 153-159.
- Park, C. W., MacInnis, D. J., Priester, J., Eisnerich, A. B., & Iacobucci, D. (2010). Brand attachment and brand attitude strength: Conceptual and empirical differentiation of two critical brand equity drivers. *Journal of Marketing*, 74(6), 1-17.
- Pfundmair, M., Graupmann, V., Frey, D., & Aydin, N. (2015). The Different Behavioral Intentions of Collectivists and Individualists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3), 363-378.
- Pickett, C. L., Gardner, W. L., &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9), 1095-1107.
- Revelle, W. (2018). psych: Procedures for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USA. Retrieved from <https://CRAN.R-project.org/package=psych>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mith, E. R., Murphy, J., & Coats, S. (1999). Attachment to groups: Theory and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94-110.
- Steiger, J. H., & Lind, J. M. (1980, June).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Y: Harper Collins.
- Twenge, J. M., & Cacho, J. C. (2003). When does social rejection lead to aggression? exploring situational and target effects. Unpublished manuscript.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Van Orden, K. A., & Jonier, Jr., T. E. (2013). Depression and Suicide: Transactional Relations with Rejection, DeWall, C. N.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n, E. W., Xu, J., & Ding, Y. (2013). To be or not to be unique?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6), 1109-1122.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 Williams, K. D. (2009). Ostracism: A temporal need threat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75-314.
- Williams, K. D., & Jarvis, B. (2006). Cyberball: A program for use in research on interpersonal ostracism and accepta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8(1), 174-180.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원 고 접 수 일 : 2019. 01.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2. 19.

게 제 결 정 일 : 2019. 02. 2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 Scale

Byung-Kwan Lee¹⁾

Yun, TaiWoong²⁾

Hwan-Ho Noh¹⁾

Hye Bin Rim¹⁾

¹⁾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measuring a social exclusion experience of an individual. Based on the study of Gilman et al. (2013) who developed a scale to measure a response tendency toward social exclusion, we developed and validated a Korean version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 scale items.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scale consists of 2 factors and each factor has 8 items.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shows a high level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theoretically related constructs. In addition, we conducted a validation analysis of a short version of the two factors to achieve a parsimony of the scale. It was found that the short version of the scale consists of the same two factors as the original scale and each factor has 4 items. The usefulness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 scale and it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experience scal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